

##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가족 비교

이 미 숙\*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조 병 은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강 란 혜 (충신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본 연구는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가족을 중심으로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은 어떠한지 비교해보고 배경변수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모생존 아동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9개 초등학교 3-6학년생 438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조모용 설문지는 손자녀를 통해 전달하도록 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은 조모와 손자녀 274쌍이다. 자료분석방법은 요인분석, t검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 또는 비취업모가족이든지 조모는 학동기 손자녀에 대해 훈육자 역할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하는 반면,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한다. 둘째,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족별로 조모 역할수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역사 및 전통의 계승자역할과 훈육자역할수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반면,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수행에서는 비취업모보다 취업모가족일 때 조모의 역할수행이 더 많다. 셋째, 배경변수와 조모 역할수행과의 단순상관관계는 취업모와 비취업모가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모가족의 경우, 조모의 역할수행은 조모의 연령, 건강, 생활수준, 조모와 모 관계 등과 상관이 낮은 반면, 배우자가 없을 때, 손자녀와 동거할 때, 조모 손자녀간 대면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조모 역할수행은 높아진다. 비취업모가족의 경우, 조모의 역할수행은 배우자유무, 조모 건강, 생활수준, 손자녀 동거여부 등과 상관이 낮은 반면, 조모 연령이 낮을수록, 조모와 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모 역할수행은 높으며, 조모 손자녀간 대면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조모의 훈육자 역할수행이 높다. 넷째,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조모 역할수행에 대한 배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족별로 차이가 있다. 취업모가족의 경우 조모의 역할수행에는 조모 손자녀간 대면접촉빈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밖에 조모의 배우자유무는 특히 손자녀지지 및 대리모 역할수행에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비취업모가족의 경우 조모의 역할수행에는 조모 연령 및 조모와 모 관계가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 취업모 또는 비취업모가족인지에 따라 조모의 역할수행이 달라지며, 조모 역할수행에 대한 배경변수들의 영향력 또한 취업모 또는 비취업모가족별로 분명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